

환경단체 “학교 석면 철거 엉터리 진행”

겨울방학을 맞아 여러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해당 학교 명단을 공개, 학내 석면 철거 방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7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학교 내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석면 철거 과정에서 슬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면 철거 중인 학교는 1209개교다. 지역별로는 ▲경기(357개교) ▲전북(157개교) ▲경북(135개교) 등 순으로 많았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7%(572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의 ▲중학교(21%) ▲고등학교(29%) ▲유치원(21.2%) ▲특수학교 (1%) 순이었다.

이들은 “석면 철거는 공사과정 중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철거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작년에 불거진 엉터리 철거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태스크포스(TF)의 합동조사 결과, 지난해 여름방학동안 석면을 철거한 1226개 학교 중 38.4%인 470개 학교에서 석면 문제가 발견됐다.

당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에서는 석면 철거 작업을 마친 후 교실 곳곳에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 등이 방치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동욱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위원장은 “석면먼지나 조각에 노출돼 악성종괴(가슴막 공간을 둘러싸는 종괴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학교 내 석면 문제가 심각한 건 질병이 10~20년 잠복기를 거쳐 석면에 노출된 학생들이 성인기에 발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 내부는 물론 인근 지역사회 오염 우려도 있다”라며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석면 철거 전문업체 육성 및 확보 ▲지역 환경단체·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리제도 도입 ▲환경부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한 학교 석면 철거 현장감시활동 추진 등을 제안했다.

“슬한 문제점 지적에도 제대로 개선 안돼”

지난해 철거 작업 학교서 석면 잔재 발견
청소년기 노출시 잠복기 거쳐 성인기 발병
전문사업체 육성·현장 감시 활동 등 제안

최예음 환경시민감시센터 소장은 “현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모인 석면 철거 태스크포스(TF)에서는 1209개교를 공사하고 지역별로 10%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시료 채취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기간 동안 매년 1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물별로 층별로 일부만 진행되기에 무식한 학교수가 늘지 않고 있다”라며 “석면 철거 과정에서 오염을 고려하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한 학교의 석면을 한번의 공사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우리로 함께 합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1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대학교의 글로벌 프로그램 참석차 방한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여성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300억짜리 나주친환경물류센터 준공 석달 만에 누수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준공 된지 3개월 된 나주친환경종합물류센터가 11mm 겨울비에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는 하자로 불바다로 변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내린 겨울비로 나주 산포면 내기리에 준공된 친환경물류센터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17일 준공된 나주친환경종합물류센터는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수집과 산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건축비 278억원과 부지매입비 27억원 등 총 307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규모는 연면적 1만3644㎡에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업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시설 관리는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가 맡고 농협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 16일 발생한 천장 누수는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이날 오전까지도 물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지붕에서 시작된 누수로 ‘빅스’라고 불리는 하얀색 천장 마감재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천장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듯 쏟아지는 물줄기 때문에 바닥에 웅건하게 고인 물을 청소근로자들이 쓰레파카와 밀걸레를 이용해 쓸어 담으려 했지만 역부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2개동에서는 휴식나 문서가 물에 젖을 것을 우려해 급하게 비닐로 덮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어제 발생한 천장 누수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센터 한 근무자는 “천장 누수는 건축물 준공 전인 지난해 8월에도

발생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근무자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시공사와 감리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발생한 누수에 대해 관리주체인 나주시 관계자는 “센터가 들어선 곳이 고도제한 지역인 탓에 지붕 경사각이 완만하게 설계돼 지붕 경사에 따라 눈이 녹은 물과 빗물이 아래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얼어붙은 상태에서 지붕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 이음새 부분으로 역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중으로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뉴스스

이스라엘서 낙타 때문에 연쇄 차량 사고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고속도로에서 낙타와 차량 2대가 충돌해 13세 소년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예루살렘온라인(JOL)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네게브 인근의 40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떠돌이 낙타와 부딪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3세 소년이 숨지고 가족 4명이 크게 다쳤다.

차량 충돌이 일어난 직후 도로를 달리던 군용 차량이 또 다시 사고를 낸 낙타와 충돌해 군인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의 안전 운전 캠페인 오르아로크의 에레즈 키타 최고경영자(CEO)는 “낙타가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부주의로 사망해야 하겠는가”라며 “남부 지역에서 낙타들이 마음대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며 운전자들을 위협한다는 점을 다들 잘 알면서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선 2016년 낙타의 주인을 식별하기 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는 ‘낙타 법’이 추진됐지만 아직 의회에 계류돼 있다.

필리핀 마운화산 화산재·용암 분출

필리핀 중부에 있는 마운화산에서 1000m 높이의 화산재와 용암이 분출해 주민 3만4000여명이 대피했다고 AP통신, 필리핀스타 등 외신들이 16일 보도했다.

필리핀 화산지질연구소는 이날 루손섬 알바이주(州)에 있는 마운화산의 분화구에서 용암이 2km 이상 흘렀고 루손섬 남동부에 있는 일부 마을까지 화산재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레나토 솔리덤 화산지질 연구소 소장은 이날 성명에서 흘러내린 용암은 분화구 폭발이 원인 아니고 분화구 아래 경사면이 폭발로 갈라지면서 흘러 나왔다고 밝혔다. 또 화산경계를 최고수준인 5단계로 격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현지 당국은 인근 마을에 대피령을 내리고 마운화산 반경 6~7km까지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마운화산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관계자는 AP통신에 용암이 흐르는 마운화산이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장관이라고 말하며 접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귀가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가족 대피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바이주정부의 재난관리 담당자는 이날 성명에서 추가로 강제 대피시킨 1만2000명을 비롯해 지난 주말부터 주유 도시 2곳과 마을 6곳에서 학교 등 임시 대피소로 대피한 주민이 최소 3만4038명으로 확인됐고 친척 집으로 간 주민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재정지원을 위해 비상상태를 선포했다고 전했다.

마운화산은 마닐라에서 남동쪽에서 3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활화산으로 지난 50년간 50번이나 폭발했다. 지난 2013년 화산재가 분출해 등산객 5명이 경고를 무시하고 정상에 올라가다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가장 격렬하게 폭발한 때는 지난 1814년으로 당시 주민 1200명이 숨졌고 키그사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다. 마운화산은 원뿔 모양의 아름다움 때문에 등산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미시간서 한밤중 유성 폭발 소동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하늘에서 한밤중 핑음과 함께 유성 폭발이 일어나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당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 이들이 많았다.

기상정보업체 어큐웨더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불덩이가 오늘 저녁 미시간주 남동부 하늘을 밝혔다. ‘뽕’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다”며 “유성이 지구 대기권에서 불탄 것”이라고 밝혔다.

어큐웨더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하늘에서 커다란 물체가 밝은 빛을 내며 떨어진다. 이어 어두컴컴하던 일대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트위터상으로 “관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핑음과 핑음은 천둥이나 불빛이 아니라 유성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문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상에는 유성 폭발 목격담이 잇달았다. 한 네티즌은 “뚝대 사람들도 전부 엄청나게 큰 핑 소리가 났다고 얘기했다. 집이 흔들리기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건강인
신나는 행복, 건강한 생활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요...
양치로 죽여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아직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독이켜 보면
놓치고 지내, 그래서 잊고 지내 시간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
건강검진

암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